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④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돌아와서 마른 홰나무 가지를 비벼 불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하였다.

다음 날 다시 숲속으로 가서 생각에 잠겨 배회하고 있으려니, 홀연히 한 마리의 줄무늬 범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기에, 고시씨가 벽력과 같은 소리로 꾸짖으며 돌을 날려 호되게 내려치니 바위 모서리에 빗맞으며 번쩍이면서 불길이 일어나기에, 이에 크게 기뻐하고 돌아와 다시 돌을 부딪쳐서 불을 얻게 되었다. 이로부터 백성들은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조하는 기술이 비로소 흥성하였기에 제작의 능률도 점차 나아지게 되었다.

又使神誌氏作書契. 盖神誌氏, 世掌主命之職, 專管出納獻替之務, 而只憑唯舌, 曾無文字記存之法. 一日, 出行狩獵, 忽驚起一隻牝鹿, 彎弓欲射, 旋失其(跡)[踪]. 乃四處搜探, 遍過山野, 至平沙處, 始見足印亂鑽, 向方自明, 乃俯首沈吟, 旋復猛省曰: [記存之法, 惟如斯而已夫! 如斯而已夫!] 是日, 罷獵卽歸, 反復審思, 廣察萬象, 不多日, 悟得 成文字, 是爲太古文字之始矣. 但後世年代邈遠, 而太古文字泯沒不存, 抑亦其組成也, 猶有不完而然歟. 嘗聞, 六鎭之地及先春以外岩石之間, 時或發見雕刻文字, 非梵非篆, 人莫能曉, 豈神誌氏所作古字歟?

또한 신지씨(神誌氏)로 하여금 글을 짓게 하였다. 무릇 신지씨는 대대로 임금의 명을 주관하는 직책을 맡으며 명령의 출납과 임금을 보좌하는 임무를 관리하였는데, 단지 한낱 혀에만 의지할 뿐, 일찍이 글로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놀라 달아나는 암사슴 한 마리를 보고 활을 당겨 쏘려 하였으나 순식간에 그 종적을 놓쳐 버렸다. 이에 사방을 수색하며 산과 들을 두루 지나 넓은 모랫벌에 이르러 비로소 어지럽게 찍혀있는 발자국을 보니 달아난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라,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가 잠시간에 불현듯 깨달아 말하기를 [기록하여 두는 방법은 오직 이와 같을 따름이구나! 이와 같을 따름이야!] 하였다.

그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연거푸 깊이 생각하며 널리 만물의 모습을 관찰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어 글을 만들어 내니, 이것이 태고 문자의 시작이다. 그러나 후세에 세월이 까마득히 오래되어 태고 문자는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니, 생각건대 그 꾸밈새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한다. 듣건대 육진(六鎭)의 땅이나 선춘(先春) 등지의 암벽 사이에 때때로 문자를 조각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범자(梵字)도 아니요 전자(篆字)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능히 알아먹지 못한다고 하니, 어쩌면 그것이 신지씨가 지은 옛문자가 아닌가 한다.

高矢氏, 亦世掌主穀之職, 而後世蚩尤高矢 神誌之苗裔, 繁衍最盛. 蚩尤氏之族, 則占居西南之地; 神誌氏之族, 則繁殖於北東之地; 獨高矢氏後裔, 廣處東南, 轉流爲辰弁諸族, 後之所謂三韓者, 皆其孫也. 三氏苗裔, 又細分九派, 卽夷 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暘夷之屬, 皆異支同祖, 不甚相遠. 夷之爲言, 大弓之稱也. 盖自蚩尤氏作刀 戟 大弩以後, 狩獵征戰, 賴以爲武, 中土諸族, 甚畏大弓之用, 聞風膽寒者久矣. 故謂我族曰夷. 《說文》所謂: [夷, [人人大]人人弓, 東方之人.]者, 是也. 乃至仲尼《春秋》之作而, 夷之名, 遂與戎狄 幷爲醜 之稱, 憤哉! 後世 夷 風夷, 分遷西南, 恒與中土諸族, 互相. 風夷則卽蚩尤(氏)之一族也.

고시씨 역시 대대로 곡식을 주관하는 직책을 맡았으며, 후세에 치우씨·고시씨·신지씨의 후예들이 가장 번창하여 융성하였다. 치우씨의 부족은 서남의 땅에 자리를 잡았고, 신지씨의 부족은 북동의 땅에 많이 정착하였는데, 오로지 고시씨의 후예들만이 동남쪽에 넓게 거처하다가 더욱더 이동하여 변진(辰弁)의 뭇 부족들이 되었으니, 후에 삼한(三韓)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모두 그의 후손들이다. 삼씨(三氏)의 후예들은 또한 아홉 갈래로 자세히 나누어지는데, 곧 견이(夷)·우이(夷)·방이(方夷)·황이(黃夷)·백이(白夷)·적이(赤夷)·현이(玄夷)·풍이(風夷)·양이(暘夷)의 무리들이 모두 같은 조상의 다른 가지일 뿐, 서로 그리 멀지는 않다.

'이(夷)'자는 큰 활을 지칭하는 것이다. 치우씨가 칼과 창이며 큰 쇠뇌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사냥하고 전쟁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병장기로 삼으니 중토의 뭇 부족들이 큰 활의 쓰임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그 위풍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곤 한 지가 오래되었기에 우리 민족을 일컬어 '이(夷)'라고 한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이르기를 [이(夷)는 '크다(大)'는 것과 '활(弓)'에서 유래하였으며, 동방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중니가 《춘추》를 짓기에 이르러 이(夷)의 이름을 마침내 융(戎)이나 적(狄) 등과 아울러 비속한 명칭으로 삼아 버리니 분할 따름이다. 뒷날 견이와 풍이는 따로 서남으로 옮겨가서 항시 중토의 여러 부족들과 서로 엎치락 뒷치락 세력을 다투었는데, 풍이는 바로 치우씨의 일족이다.

先是蚩尤氏, 雖然驅除鳥獸魚之屬, 而人民猶在土穴之中, 下濕之氣逼人成疾. 且禽獸一經窘逐, 漸自退避藏匿, 不便於屠食. 神市氏, 乃使蚩尤氏, 營造人居; 高矢[氏], 生致牛 馬 狗 豚 雕 虎之獸而牧畜; 又得朱因氏, 使定男女婚娶之法焉. 盖今之人謂匠師曰智爲者, 蚩尤氏之訛也; 耕農樵牧者, 臨飯而祝高矢者, 高矢氏之稱也; 婚娶之主媒者曰朱因者, 亦朱因氏之遺稱也.

이 보다 앞서 치우씨가 비록 날짐승과 들짐승 및 벌레와 물고기 등의 무리를 몰아내긴 하였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 흙굴에서 사는 까닭에 아래로부터의 습한 기운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 질병을 일으켰다. 게다가 짐승들을 한차례 휘몰아 내쫓으니 점차 스스로 물러나 피하고 숨어버린 까닭에 잡아먹기에 불편하였다.

신시씨가 이에 치우씨로 하여금 사람이 거처할 만한 것을 짓게 하였으며, 고시씨에게는 소·말·개·돼지·수리·범 등의 짐승을 사로잡아 데려와서 가두어 기르게 하였으며, 또 주인씨(朱因氏)를 신임하여 그에게 남녀간에 장가들고 시집가는 법을 정하게 하였다. 무릇 지금의 사람들이 힘센 장사를 두고 '지위'라 함은 치우씨의 이름이 잘못 전하여 진 것이며, 밭갈고 농사짓거나 나무를 하고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고시례'하며 축원하는 것은 고시씨를 일컫는 것이며, 혼인에서 중매를 서는 것을 '주인 선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주인씨의 이름에서 남겨진 명칭이다.

此時, 神市氏之降世, 已數千載, 而民物益衆, 地域愈博. 於是復置主刑 主病 主善惡及監董人民之職, 以獸畜名官, 有虎加牛加 馬加 鷹加 鷺加之稱. 盖牛 馬 狗 豚之屬, 皆當時民衆養生之料, 而賴以爲業者也; 虎與鷹 鷺者, 境內棲息之鳥獸, 而以表官職之[性也. 後世夫餘國, 猶傳此俗, 亦以獸畜名官, 此不可 述焉.

이때는 신시씨가 세상에 내려온지 이미 수천 년이 되었으니, 백성과 사물들은 더욱 많아졌고 땅의 경계는 더욱 넓어졌다. 이에 다시 형벌과 질병 및 선악을 주관하고 백성들을 보살펴 이끌 수 있는 직책을 설치하고 금수와 가축의 이름으로 벼슬을 이름하였으니, 호가(虎加)·우가(牛加)·마가(馬加)·응가(鷹加)·노가(鷺加) 등의 명칭이 있게 되었다.

무릇 소와 말 그리고 개와 돼지 등의 무리는 모두 당시에 백성들이 기르는 것으로 이에 의지하여 생업을 삼았던 것이며, 범과 매 및 해오라기 등은 나라안에 서식하는 새와 짐승들이니, 이로서 관직의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 권혁승(상임부총재) 10만원
△ 권규화(부총재) 20만원
△ 권오영(부총재) 20만원
△ 권순택(부총재) 20만원
△ 권혁춘(부총재) 20만원

소 계 90만원

▣ 종무위원회비
△ 권혁길(강릉) 20만원
△ 권순덕(영주) 20만원
△ 권태연(제천) 20만원
△ 권승호(의성) 20만원
△ 권중우(안동) 20만원
△ 권오극(안동) 20만원
△ 권기욱(영주) 20만원
△ 권영건(안동) 20만원
△ 권중덕(안동) 20만원

소 계 180만원

합 계 270만원

어리석은 부견(苻堅)의 관용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위진남북조 시절에 북조를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은 전진(前秦)의 부견이다. 난마같이 얽혀 있던 북조에서 이특의 성(成)을 멸망시킨 전진은 부견시절에 와서 전연(前燕)과 전량(前涼)을 정복하여 통일을 이룬 것이다. 북조가 4분5열 된 지 60~ 70년 만에 큰일을 이룬 것이다.

부견이 통일하고서 이제 북조 전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를 고심하다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친척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4촌 동생인 부중(苻重)을 진북(鎭北)대장군으로 삼아서 계(薊)에서 진수(鎭守)하게 하였다. 계는 지금의 북경지역으로 새로이 정복한 지역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부중을 크게 신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중의 동생으로 부락(苻洛)이 있었는데, 그는 부견을 도와서 지금의 내몽골지역인 대국(代國)을 정벌하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때 부락은 정북(征北)대장군으로 유주(幽州)자사를 맡고 있었다. 그러니 부중과 부락 형제가 중국의 동북지역 즉 새로 정복한 지역에 대한 통치를 이들 형제가 맡게 된 셈이다, 그만큼 부견이 이들을 신임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락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자기가 대국(代國, 내몽고지역)을 정벌한 공로를 세웠으니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맡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견은 삼공의 지위를 갖고 독자적으로 관부(官府)를 열 수 있는 이 직책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높은 벼슬을 요구하는 그를 도리어 익주(益州)로 옮기라고 명령하였다.

정북대장군의 직책을 정남대장군으로 삼고, 유주자사를 익주목으로 삼았으니, 그의 벼슬을 깎은 것은 아니지만, 부락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근거지를 떠나서 서쪽으로 옮기라고 한 것이므로 화가 났다. 아마도 전진왕 부견의 입장에서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높은 직함을 요구하는 부락과 그의 형 부중을 같은 동북지역에 둔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이 세어 달리는 소를 쫓아가서 때려누일 수 있고 활을 쏘아서 쟁기를 뚫을 수 있는 재주를 가진 부락은 대단히 용감하기 까지 한 장군이었다. 성격이 괄괄하고 다혈질적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부견의 명령을 받고는 화가 났다. 그는 자기를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는 것은 공로를 세우게 한 다음에 자기를 없애려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군사를 일으켜서 전진왕 부견에게 대항하기로 하였다. 많은 사람이 반대하였지만 일단 생각을 굳힌 그는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형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켰다. 7만 명이라는 많은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이 정도의 군대라면 충분히 장안에 있는 부견에게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진왕 부견은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부락을 한편 나무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였다. 일으킨 군대를 거두면 부락이 근거로 삼고 있는 유주를 대대로 봉지(封地)로 삼게 한다는 것이다. 부견은 자기가 내린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하북성과 그 동북지역을 모두 부락에게 준다는 말이었다. 큰 제의를 한 셈이었다. 이 말을 들은 부락은 부견이 뒤가 켕겨서 그런 제의를 한 것으로 보고, 큰 소리를 쳤다. "전진왕 부견이 나와서 항복하면 상공(上公)을 시켜 주겠다." 자기가 왕이 되고 지금 왕인 부견을 상공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고 판단한 부견은 부중과 부락을 쳤다. 이 과정에서 부중은 죽었고, 부락은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부견은 반란을 일으킨 부락을 사면하고 귀양만 보냈다. 관용을 베푼 것이다. 이러한 관용정책 때문인가 그가 북조를 통일한지 10년이 못 되어 다시 분열되었다.

역사가는 반란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귀양만 보냈으니, 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래서 반란이 만연하여 나라가 다시 쪼개진 것이라는 것이다. 관용은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때로는 관용은 어리석은 짓이 된 셈이었다.

성인들의 사상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箚

퇴 계 이 황 진 성 학 십 도 차

(지난호에 이어)

3.소학제사(小學題辭)

원(元)과 형(亨)과 이(利)와 정(貞)은 천도(天道)의 떳떳함이요, 인(仁)과 의(義)와 예(禮)와 지(智)는 인성(人性)의 벼리[綱]이다. 무릇 사람의 성품(性品)은 시초에는 착하지 아니함이 없어, 애연(藹然)한 네 가지의 착한 근본[端]인 <인(仁)·의(義)·예(禮)·지(智)>가 애연히 <물(物)>에 감동함을 따라서 나타난다.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과 임금께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함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떳떳한 성품이다. 이것은 순(順)한 것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인(聖人)의 성품은 호호(浩浩)히 하늘과 같으니, 터럭 끝만큼도 더하지 않아도 만 가지 선(善)이 족하다.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물욕(物慾)에 서로 가리어져 그 벼리[綱]가 무너지고 자포자기(自暴自棄)에 빠져 버린다. 성인은 오직 이 점을 가엾게 여겨,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두어서 그 뿌리를 북돋우고 그 가지를 이루게 하였다. '소학(小學)'의 법은, 모든 행동에 거스름이 없이 행한 연후에, 시(詩)를 외고 글을 읽는 데 힘쓸 것이며, 영가(詠歌)하고 무도(舞蹈)를 하는 데도 생각이 지나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궁구하고 몸을 닦는 것이 이 학문의 큰 요지이다.

4.대학경(大學經)

대학(大學)의 도(道)는 타고난 깨끗한 본성[明德]을 깨닫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히 착하도록 하는 데[至善] 있다. <자기의 분에 넘치지 않도록> 안 뒤에야 정(定)함이 있나니, 정한 뒤에야 고요하여질 수가 있고, 고요하여진 뒤에야 편안하여질 수가 있다. 편안하여진 뒤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야 얻을 수 있다. 사물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고, 일에는 선후가 있나니,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을 알면 도(道)에 가까워질 것이다. 옛날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자는 먼저 그 집을 정돈하였으며, 그 집을 정돈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았다. 또 그 몸을 닦으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였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였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깨달아서 앎을 이루게 하였으니, 앎을 이루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5.동규후서(洞規後敍)

第五白鹿洞規圖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희(熹:주자의 이름)가, 옛날 성현이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는 뜻을 가만히 보니, 어느 것 할 것 없이 의리(義理)를 강명(講明)하고, 그 몸을 닦은 뒤에 이것을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고 두로 보아 사장(詞章)을 짓기에 힘써, 명성(名聲)을 구하고 이록(利祿)을 취하고자 할 뿐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부하는 이들은 이미 이와는 반대된다. 성현이 사람 가르치는 법은 경(經)에 갖추어져 있으니, 뜻있는 선비는 마땅히 숙독(熟讀)하고 심사(深思)하여 묻고 분변해야 할 것이다.

위의 규(規)는 주자가 만들어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도에게 게시(揭示)한 것이다.

6.심통성정도설(心統性情圖說)

임은(林隱) 정씨(程氏)가 말하기를, "소위 마음이 성(性)과 정(情)을 거느리고[統] 있다는 것은, 사람이 오행(五行)의 빼어남[秀]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말이니, 그 빼어남에서 오성(五性)이 갖추어져 있고, 오성이 동(動)하는 데서 칠정이 나오는 것이므로, 대개 그 성·정을 거느리는 것은 마음이다. 그럼으로, 그 마음이 적연(寂然)히 움직이지 아니함이 성이 되는 것은 마음의 근본[體]이요, 감통(感通)하여 정(情)이 되는 것은 마음의 도구[用]이다"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마음이 성과 정을 거느린다는 말이 마땅하다. 마음이 성을 거느린 까닭에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성이 되고, 또 인의의 마음이라고 한 말도 있으며, 마음이 정을 거느린 까닭에, 측은히 여기는 것,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사양하는 것,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등이 정이므로, 또 측은히 여기는 마음,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이라는 말도 있다. 마음이 성을 거느리지 못하면, 그 미발지중(未發之中:喜怒哀樂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을 극치(極致)로 할 수 없어서 성이 뚫어지기[鑿] 쉽고, 마음이 정을 거느리지 못하면, 그 중절지화(中節之和:희로애락이 발현되어 다 절도에 맞는 상태)를 극치로 할 수 없어서, 정이 방탕하기가 쉬울 것이니,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서 반드시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성을 기르고 그 정을 절제하면, 배우는 방법이 얻어질 것이다"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투고

幸福의 2가지 원칙

權 五 福
(본원 편집위원)

인간(人間)의 복(福)을 짓는 방법(方法)에 대해서도 저마다 생각(生覺)이 다양하고 주장도 다르다.

하지만, 그 판단은 그 복(福)을 거둬들이는 우주의 질서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행복(幸福)으로 순환되어 돌아오는 진정한 복(福)을 짓고자 한다면 두가지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복(福)을 지으라고 하면 상대방의 물질적 빈곤을 채워주는 방법을 떠올린다. 물론 당장 잘난 곳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밥 한끼가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의식주(依食住)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 한번 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진정 의미있고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치와 복(福)을 짓는 일이다. 이는 생명(生命)을 창조(創造)한 우주 마음이 가장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위의 가족(家族), 이웃, 친지(親知)들과 함께, 태양(太陽)의 힘을 나누는 일은 더 큰 수치의 복(福)을 짓는 일이다. 그 복(福)을 통해 내가 우리 가족이 사회 전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는 또한 행복(幸福)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결처럼 번져나가 더 큰 행복(幸福)으로 순환해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회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누는 것을 미덕(美德)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렵게 지운 복(福)을 자신(自身)의 공명심(功名心)을 높이는 데 다 써 버린다는 사실이다.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기부하고 어떤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세상(世上)에 알려짐과 동시(同時)에 그 복(福)은 교만이 되어 날아간다.

진정 나의 내면을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幸福)으로 완성(完成)되지 못한다. 애써 지은 복(福)이 타인(他人)의 칭송을 받고 일시적인 명예가 올라가는 것으로 모두 상쇄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복(福)을 지을때는 결코 이름(姓名)을 드러내거나 어떤 대가에 얽매이지 말고 묵묵히 순수한 마음으로 독지(篤志)로 행동(行動)하는 것에 만족할 뿐 그 이상의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주고 베풀었으면 모두 잊어 버려야 한다.

바로잡습니다

본지(종보 제447호, 2012. 9.1) 6면에 제21회전국서예대전 尹泰嬉씨를 尹泰姬씨로 바로잡습니다.